貞洞領事館侵入으로 勞農副領事抗議

토농령사관에들어가폭행한사건으로 다시는그런일업게해달라고 總督府當局者에게

본보에 임의보도된 지나간구일오후 세시삼십분경에 경성부와룡동(臥龍洞)이십이번디정신병자(精神病者) 류중하(柳重河)(三五)가경성로농로서아 총령사관(京城勞農總領事館)에침입하야아라사국긔를나리라고요구하며폭행한사건에대하야부령사(副領事)쿠스티 [illegible]씨는본건상황을주일로농대사(駐日勞農大使)와모스쿠바정부에보고하는동시에 아래와가튼항의서(抗議書)를지상정무총감(池上政務總監)에게 데출하얏다더라

抗議書

四月九日午後三時頃에一名의怪漢이自轉車로無斷히當領事館構內에侵入하야館員에對하야國旗의引下를强要하얏슴으로써館員等은同人에對하야速히領事館構外에退去하기를命하얏든바怪漢은當領事館小使를毆打한後暴言을吐하고館內로狂奔하얏슴으로小官은館員『마니약』으로하야금該暴漢을所轄警察署에同行토록命하자怪漢은自轉車로何處로인지逃走하얏다其後約三十分에同怪漢이再次當領事館前을通過코저하는것을西大門警察署員이逮捕하얏는데同署의通知로犯人은朝鮮人柳重河로判明되엇다

如斯한事件이惹起되엇슴은甚히遺憾으로아는者이다本事件의眞相에對하야는充分한取調잇기를希望하는同時에將來再次如斯한事件을惹起치안토록하여주기를바라노라

車天子登極說로 普天教의迷夢妄動

독갑이가튼보텬교도들 所謂『任』買賣로詐取

경북의 성군구천면(慶北義城郡龜川面)내에는 수년전부터 보텬교가 성행하더니 근자에와서는일차수십명식 작당하야 보텬교본부인 전북정읍군(全北井邑郡)을자조래왕하는데 그내막을탐문한즉 알에와가튼 직품을매매하며 동군동면(同郡同面) 리석윤(李碩潤)은비안、단북、안계(比安、丹北、安溪)등디로횡행하면서 차텬자가 등극할때가림박하얏스니 너희들도하로라도 속히보텬교를 신앙하라 만일밋지아니하면 텬벌을마저죽고 말리라 보텬교주인차텬자는 비단동양(東洋)뿐아니라 서양(西洋)까지 통일텬하를 임의로할것이니 그때에관직을 미리예비하여야된다하며 륙임(六任)이라는직품을맛자면 돈일천팔백원 십이임(十二任)은 일백오십원(一百五十圓)팔임은(八任) 일백이십원(一百二十圓) 십오임(十五任)은삼십원(三十圓)이니 각각원하는대로 금액을 준비하라하며 오는소만절(小滿節)에는 치성비까지준비하라는긔괴한선뎐에우매(愚昧)한민중들은이후세에영광을 몽상(夢想)하며뎐답방매(田畓放賣)를용심(用心)하나 일매자가업스며지난춘분(春分)때에는만흔금전을모집하야수십명교도가정읍차텬자에게주엇다하며 일반인심을동요식힌다더라(안긔)

◇新入學生歡迎講演 시내경운동(慶雲洞)텬도교학생회(天道敎學生會)주최로 [illegible]들청하야 오는십구일 [illegible]여덟시부터 텬도교긔[illegible]서 신입학생환영강연[illegible](新入學生歡迎講演會)를[illegible]라더라

本報筆禍事件 兩氏에게體刑求刑

각각신문지법위반으로 ◇禁錮四個月式

본보필화사건(本報筆禍事件)의속행공판은예뎡과가티작십륙일오전열시경에경성디방법원데삼호법뎡에서말광(末廣)재판장심리와중야(中野)검사간여하에개뎡되엇는데피고인안재홍(安在鴻) 백관수(白寬洙)량씨에대한심리가끗난후 중야검사는 량씨에대하야 신문지법위반(新聞紙法違反)으로각각금고사개월(禁錮四個月)을구형한후 변론에들어가변호[illegible]▲[illegible]承烈▲崔鎭▲[illegible]國鎭▲許憲▲李仁[illegible]金泰榮▲趙憲植▲[illegible]升雨 등제씨의 변론이끗낫는데판결은오는이[illegible]도하리라더라

◇물우에도봄! 물속에도봄! 금일부터 야앵보게된창경원

朝鮮農民社 新部署

신임리사로 ◇將來方針決定

시내경운동(慶雲洞)조선농민사본부(朝鮮農民社本部)에서는지난번 전국대회에서 선거된리사의 첫회합을 [illegible]사일오후네시부터 그사무실에서 [illegible]리엇는데새로히각부서(部署)를조직하고신년도각종사업을결의하고 산회 한바그신임부서[illegible]항은아래와갓다더라

一、部署組織

▲中央理事長李晟煥 總務金[illegible] [illegible]長鮮于全 ▲[illegible]務經理部長金道賢 ▲調査出版部長金[illegible] 明容駿 ▲組織宣[illegible] [illegible]煥 部員趙基栞 [illegible] 戰珦 金公善 李[illegible] 金昌玄 朴泰根 [illegible]長庚 鄭寅寬 李[illegible] ▲[illegible]部長柳光烈 [illegible]煥 李晟煥 朴達[illegible] 部長崔斗先 部員[illegible] 于全 田[illegible]

[illegible]事項

[illegible]敎發運動에關한件

[illegible]當面利益獲得에關한件

[illegible]經濟調査에關한件

[illegible]出版集會結社의自由에關하야는當該當局에對하기로하며特히三總解[illegible]하기로함

[illegible]에잇서서는京畿道警察委員을派遣하야相當抗[illegible]

[illegible]委員을派遣

[illegible]春査細則起草委員選定

[illegible]外二人

女子商業教員 結束要求

[illegible]가지됴건을 학교당국에데출

[illegible]사도포함)십사인은[illegible]사일오후에닐으러현교[illegible]단일일에이삼학년이동[illegible]더한층은 긔보한바 와갓[illegible]교원 문데에도 복잡한[illegible]건은 맹휴학생보다도[illegible]휴중에잇는여자상업학[illegible]

[illegible]職員이重大한過失이업[illegible]退職시킬때에는다른職[illegible]일때까지絕對生活의安[illegible]障할것

[illegible]上必要로退職시킬때[illegible]短期限三個月以前에豫[illegible]

[illegible]務分掌을明確케할일

[illegible]務主任申時徹의復職

[illegible]에대하야 지난십사일에 창립자회의를 열고 토의하얏다는데 됴건은 학교에서요구들을들어이나 일삼됴건(一三條件)은들대로 들어줄수업다하야거절하얏더라

【李校長談】 이상문데에대하야교장리현규(李顯奎)씨는말하기를 「이문데에대하야 나로서는무엇이라말할수업슴니다만은교원중에두파(二派)로분렬되어잇는것은사실인듯합니다교원중에맹휴생에게가담하야선동하고잇는것도 사실인것 가튼데이와가튼 행동을하고잇는교원의처리도 나로서는처치하기어렵고 학교 창립자들이처리하면 나는다만 사실그대로 [illegible] 엇재든현선생들중에 분렬은 사실인만큼 나로서는그선생들의 진퇴에관해서는 관계가 조금도업습니다」하고나서는 안면에 수색이떠돌아보이더라

大同郡安教捐 不起訴로放免

[illegible]보=대동군 로남리(大同郡魯南里) 안교즙(安敎揖)은삼촌의[illegible]토디를사긔하얏다는사건으로그데수최일뎍(弟嫂崔一德)에게고소를당하야 평양디방법원 검사국에까지 갓든바 지난십삼일증거불충분으로 불긔소가되어 방면되엇다더라(평양)

平壤光高에 警告文雨下

각단데에서경고문답지 黑友會外各團體서

평양광성고등보통학교에서이십딸명의 다수한 퇴학생에게귀학하라는경고문을 발송하얏고 지난십삼일학교당국에 대하야반성하라는경고문을 발송하얏는데 그분울 나리운사건은 각방면에반감을닐으키고 겹하야 소위교사로학생에게군도들때 어둡고란리라 평양로동련맹에서도토의가되엇스며 지난십오일에 조선푸로레타리아예술동맹(藝術同盟)평양지부에서도 역시 경고문을발송하얏다 더라(평양)

중상케하는등 사건은 더욱일반의 악감을사게되는중인데 지난번관서흑우회(關西黑友會)에서

[illegible]

全朝鮮物産獎勵 全朝鮮物産싸사大會압두고【七】

全朝鮮物産中에 優秀品을投票選定

◇一、二、三等에는金銀메달◇ 投票者에도賞品贈呈

[illegible]조선중앙긔독교청년회(朝鮮中央基督敎青年會)의주최와본사후원으로 오는십구일부터 시내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관(鐘路中央基督敎青年會館)에서개최될 전조선물산장려(全朝鮮物産獎勵)[illegible]대회는련일보도하는바이가면 갈사록그인긔가 더하야저서 이케는동대회의 성공이 남기고전조선각디 [illegible]로배열화(白熱化)[illegible]더인데 이에 주최자측과후원자측(後援者側)에서는금번을 더한층 의의(意義)[illegible]대히하기위하야 씨사장하는각계급일반인사에게 진렬된각종물산중에 어느물산이데일의가잇스며또가티가잇는가 또는어느상뎜이 데일물산진렬을 잘하얏는가를 투표(投票)케하야 데일투표뎜수(投票點數)가만흔상뎜으로부터 일이삼 등을뎡하야 금은동 (金銀銅)의메달』과상장(賞狀)을 주게되엇스며또일이삼등에당선된상뎜에다투표한 일반투표자에게 도추첨으로써 본사에서 우수한상품을증여키로되엇다

會場入口에는 優雅한朝鮮古樂

더한층이채를내이게한다 會期中에繼續演奏

대회의주최자측인 조선중앙긔독교청년회에서는 동대회를 축복하는의미로 동대회 긔간중회장입구에 순조선식고악(純朝鮮式古樂)을연주케하야더한층이채를띄우게되엇더라

純朝鮮飲食의 食堂을開設 녀긔독청년회서

이대회에 시내조선녀자긔독청년회(朝鮮女子基督青年會)에서는동대회입구에 간이식당(簡易食堂)을설비하야 일반입장자의편의를 도읍게되엇는데 일반에수응할음식은『인절미』『약과』『정과』『장국밥』등의순조선음식이라더라

荷車에少女轢傷 지난십삼일오후세시경 평양신양리(新陽里)에서는 평양황금뎡강석주[illegible]

慶北土木不正事件裡面에潛在한 所謂土木組談合事件【四】

不正消費된 十八萬餘圓

도립의원에도협잡이무수 關係官廳狼狽直營

이와가티 토목청부업자들이 담합하야관리중에부정분자(不正分子)들매수결탁하야가지고도령도목공사의 청부를 맛하올때그런방법으로 책임자를 속이어서부정당한 폭리를 남기어먹기시작하기는 벌서지난 긔정십오년부터작년까지이년동안을계속한것은가장 들어나 상후축되는원로대정십오년도의경북도토

목비만하야도 봉급과 잡지출을모다케외하고 순전히 도로교량데방(道路橋梁堤防)사업에만쓴것이이십딸만오천팔백여원으로이도은 순전히 그자들이 도당국을속이고가저간것과마찬가지형편인데파연그만흔돈속에서실디공사비에든돈이 얼마나 될가를 생각한다하면 다시금그거액의 폭리를취한것이 명백히 드러난다하며그들이 그러케담합을하야폭리를취해먹기마조막으로한것은대구안동간도로중금호강(琴湖江)에가설한팔달교(八達橋)이라는바 이것에대하야서도 세간의소문이만흔데 그것은처음에설계를천정(川井)원뎐(元田)의두긔수(技手)가하야 십딸만원가량의예산으로 설계하야 본부의허가까지마터가지고정작공사에착수하라고 하다보니 처음료량하얏든뎡도까시말썽이아니들어가서예산이줄어짐으로다시설계를곳치어서총공비십오만딸천록백오십삼원십록권오리도주리고그속에서 이만구천 여원은털재(鐵材)를삽등회사에가서사오고남어지는시원조에청부식힌것이라는데토목과 갈록 좌백청치(佐伯淸治)가규금된것은그에

남의不幸엿본 群小請負者活躍

이제야한번호긔가왓다고 大邱土木界一奇觀

경상북도 대구(大邱)에서 닐어난소위토목조담합사건(土木組談合事件)의진상은 련일본보에보도하는바와 갓거니와 그와가튼중대사실로 대구의 토목청부업자(土木請負業者)들중직금직한자는 거의전부가 수감(收監)되엇는데 이것을본 군소(群小)의청부업자들은 [illegible]왓다는 관련된누손혹맛이또잇는것이라하야여러가지억측이만흔바이잇슨후로도당국에서는청부업자에게맛기라든일을곳즉영으로하야대구도립의원공사도방금즉영으로부터온소식에의하면도립의원락찰을예긔하고또누손협삽이잇슬번한듯하야경남경찰은대구도립의원의락찰여부를비밀히됴사

한다는말도잇더라

드시 공과금(公課金)을 증가부(增加納付)하야 전일에는 대자본을가진 청부업자들에게 밀리어서일다운일의청부를못하얏든설 지들은 고자 표면으로 리면으로활약에활약을 거듭하야실로볼만한 긔관(奇觀)을 닐우더라(대구)

貯水池에溺死 충남아산군(忠南牙山郡)온양수리조합뎌수지(溫陽水利組合貯水池)에는원적주소성명이 전무 불명한년령삼십세쯤되어보이는조선청년한명이 빠저죽은것을 통행인이발견하고 즉시소관 온양서에계출하얏다는데검시한결과생활난으로죽은것인듯하다더라(아산)

窓外春色도無關코 自殺하는사람들

[illegible](黃金町鹿鍋廊)가 살고가든 집구두마 (荷車)에치어 금년여섯살된 신양리한동긔(韓東基)의 [illegible]당뎡(貞洞)이 중상을당하얏다더라(평양)

轉賣되는娼妓 悲觀코自殺未遂

◇유린당하며단니다가◇ 親家貴에傷心焦慮

지난십오일오후아홉시경 시내삼각뎡(三角町)이십이번디중국료리뎜김해루(金海樓)에서묘뎡의 조선녀자한명이 음독고민한다는 급보를접한 소관본뎡서(本町署)에서는경관이현장에달려가서 검시하는일면 곳무근병원에 입원시킨후 응급수당을한결과 생명에는 별로관계가업다는데 전긔녀자는 원적을양평군설악면설곡리 (楊平郡雪岳面雪谷洞)록백칠십칠번디에두고현재 시내 황금뎡(黃金町)오뎡목사십사번디에 거주하는 박옥련 (朴玉蓮)(一名貞淑)(三三)으로시내 병목뎡(並木町) 리순원(李順元)방에 창기로 잇다가지금으로부터 약이개월전에 시내 의주통(義州通)일뎡목 구십륙번디 미곡상(米穀商) 김창룡(金昌龍)(假名)에게 이백원에팔려와서 이래 동거해오든중얼마전에 오래동안 그리든친뎡(親庭)에가서 그리운 부모를맛나보앗스나 넘우도 곤난한생활을목격한우련은실가의생활곤난을비관하고 전긔와가티 자살하랴든것이라더라

生活難에 身病까지

자살하랴다가미수 쥐잡는약먹고

시내합동(蛤洞) 일백칠십팔번디 김룡근(金龍根)은 지난십사일 오후한시오십분경 다량의죄잡는약을먹고 고민하는것을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응급수당을한결과 겨우생명만은 구하얏다는데 자살한원인은 오래전부터생활난을 늣기는중 설상에가상으로 병까지나서 오래동안병석에몸이되자 겨우 사오십원월급으로•만흔 식구가 생활하하야가기도 어려운데다가 자긔의약가도적지안어더욱곤난만하야집으로차라리죽는것이자긔신상으로나집안사람들을 위하야한모음이 되리라고 전긔와가티자살코저한것이라더라

拳銃犯에놀랜警官 無根說에終日騷動

◇신도면권총범에신경과민◇ 十七歲少年이誣告

지난십일일고양군신도면삼송리(高陽郡神道面三松里)에권총사건(拳銃事件)이 발생한이래 경긔도경찰부(警察部)를비롯하야 시내각서에서는 침식을닛고 범인수사에 노력한다함은 련일게속보도한바어니와 돌연 지난십사일 오후세시경 고양군원당면신원리(高陽郡元堂面新院里)이백딸십구번디리재정(李在政)의고용인으로잇는김복동(金福童)(一七)이가시내 사직공원(社稷公園)부근을 통행중권총휴대청년두명이나타나서전긔복동의소지품(所持品)전부를강탈도주하얏다는 고발을 접하자시내각서에서는 수십명경관이 출동하야 시내각처에 비상선을느리고 형사대를 사직공원 방면에파견하야범인을 엄탐하얏스나 아모수확이 업시 헛물만켜고돌아오게되자 아모리하야도 신고자의말이모호함으로 다시 전긔복동을서대문서로 소환하야 취됴한결과 사실이 아니고허위고발로판명되엇다는데 전긔복동은 지난십사일 주인의 부탁으로주인의장남이 류숙하고잇는 시내봉익동(鳳翼洞)오번디김뎡과 (金貞基)방에 의복을갓다주려가든도중돌연마음이변하야가지고가든의복류를시내교북동(橋北洞)영창호(永昌號)관뎐당포에입금삼십원에입질(入質)한후전긔와가티강탈을당하얏다고허위고발을한것이라더라

[illegible] 朝鮮學生科學研究會

[illegible]

◇決議事項

一、講座及講演隨時開催의件

一、圖書에關한件

一、朝鮮學生運動의統一에關한件(禁止)

一、朝鮮學生科學研究團體의統一에關한件(禁止)

一、規約修正에關한件

一、學生盟休에關한件(禁止)

一、其他事項(禁止)

◇新任委員

中央執行委員長姜炳度▲庶務部李敍相 金錫麟 黃世中 金承䊗▲調査研究部李哲夏 李仁化 白教基▲宣傳組織部崔聖煥 金駿鎬 韓睦錫▲教養部吳在賢 安鋪叙 張星祚 梁珣模

◇檢查委員

朴日 李天錫 尹炳欽 徐廷觀 朴旺勳

朝鮮學生 科學研究大會

신임간부선거

조선학생의 유일한 과학연구단데인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여러가지 지상으로 이때껏첨데상채[illegible]

재작십오일은 일요일 인데다가일긔가배우조와 봄에취한[illegible]

景福宮後苑開放

◇향원뎡압까지가도록◇ 今日부터六日間

총독부뎡사의뒤에잇는 경복궁후원(景福宮後苑)의 영화는도아조만개하얏슴으로 금십칠일부터이십이일까지 엿새동안을박물관관람구역을림시로확장하야 향원뎡(香遠亭)부근에는못가든것을 구경을식힌다는바이권에는향원뎡(香遠亭)부근에는못가든것을 금번에는그곳까지아조개방하리라더라

昌慶苑의 夜櫻 ◇一般에게公開 십칠일부터

사람들이 삼삼오오작반하야 봄빗이 무르녹은 교외(郊外)와창경원(昌慶苑)등지로몰려 창경원만하야도 십오일 하로동안의입장자가일만오천명이란금년최초의긔록을지엇는데 봄을마즌장경원의사구라가어제오늘아조만발하얏슴으로창경원에서는 십칠일밤부터 일주일동안『밤사구라』를공개하야매일오후 닐곱시부터 열시반까지개원하리라더라

春色이方濃한

◇享樂의人間들물우에서식사(食事)(칼포니아)

朝鮮女性의單一黨인 槿友會代表大會

◇五月二十六、七兩日에開催◇

全朝鮮會員二千餘名

一、朝鮮女子의鞏固한團結을圖謀함
一、朝鮮女子의地位向上을圖謀함

우에와가튼 이대강령으로 작년 오월이십칠일에 창립을 보게된 조선녀성운동의단일당(單一黨)인 근우회가 그동안각방면으로 비상한 활약을하야 사회에다대한 공헌을끼친것은 새삼스러히 여괴말할바도업거니와 자래의 용성한도 실로장족의 진보를보게되야 벌서 전주(全州) 금천(金泉)목포(木浦)담양(潭陽)대구(大邱)진주(晋州)군위(軍威)김해(金海)제주(濟州)밀양(密陽)하양(河陽)라남(羅南)신고산(新高山)명천(明川)평양(平壤)춘천(春川)함흥(咸興)경성(京城) 웅긔(雄基)등과 멀니 동경(東京) 대판(大阪) 경도(京都)에까지 도합스물두곳의 지회를 설치하게되엇고 방금 지회 설치준비중에 잇는곳이 적지안으며 지금까지의 전국에널려잇는 회원이 이천여명에 달하엿다 이제창립일주년을긔하야 데일회 전조선대표자대회(全朝鮮代表者大會)를열고동회의 진흥방침을토의하기로결정한후 재작십오일정긔집행위원회에서 상세한토의가잇슨결과대회는오월이십륙칠량일동안시내천도교긔념관에서 열게되엇고 창립일주년긔념식은 창립한날 보다이주일을닥어서 오월십이일에 거행하기로결정되엇다하며 동회의 본부집행위원제씨들은오래전부터불철주야하고이에대한만반준비에노력하는중이요특별히책임가진준비위원이십팔명을선뎡하야 일층민속한 활동을하게하엿다는데 그씨명은 다음과갓고 작년동회창립대회에 통과된 의안중 매년일차식 전조선녀성으로괴념할녀자날을 사월 십륙일로 긔뎡하엿섯든바 다시 본부집행위원회에서 『녀자날』에대한여러가지문데가 니러나서 이것은전국대표자대회에까지류안(留案)하기로결의되엇다더라

◇大會準備委員氏名 ▲委員長 鄭鍾鳴 ▲委員 方信榮 金東俊 洪愛施德 禹鳳雲 沈恩淑 朴昊辰 崔恩喜 黃信德 朴敬植 文仁順 許貞淑 丁七星 李賢卿 趙元淑 兪珏卿 劉英俊 李璣姬 姜貞熙 黃淼希 朴瑛海

봄철과小兒病 (一)

濟衆醫院 金殷善

날이떡다뜻하야젓습니다 따라 양한절시과에는 각가지병이 류행하지만은 특히봄에는 소아에게 무서운전염병이 류행합니다 그럼으로 부모되신이는 미리그병에대한상식을 가저서 이러한불행을 미연에예방하고 또 불행이잇슬때에는 틀림업시 뎌당한처치를 베풀지안으면 아니될줄 압니다 이케소아를 두신 가뎡에서주의치안으면 아니될그병의 몃가지를 들고저합니다

一、痲疹(홍진, 홍역, 홍머기) 이병의원인되는 물건은 아즉도 발견되지못 하얏습니다 그러나 무서웁게 전염잘되는 병으로병자의담과 대소변열가튼것은 물론입김(呼氣)에도전염된다합니다 때문에 한번이병이 발생되면 순식간에 한마을 한동내에와짝 퍼지고 맙니다 그뿐아니라우리 인생은 이병에대하야 걸리기쉬운소질을 가지고 잇기때문에생전에이병을모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럼으로써 살어서홍역을 알치 안으면죽어서라도 이병을 알코야만다는말이 전해잇습니다 그 ... 이병은 일생에 한번 알코나면대개 일생에다시걸리지안음으로이 만은 불행중 다행이 나두번세번세감되는 일이업지 안흠으로 걸어의안심은 할수가 업습니다 또해에딸어경한류행을할때가잇고 험한류행을 할때가잇습니다 이것은균(菌)의독력(毒力)여하에딸이것으로 조선서는 이번홍역은몹다질다하야 량성(良性) 악성(惡性)의구별을합니다 고혼홍역이 돌때에는 증상이경하고딸아사망률도적습니다만은 진한홍역이돌때에는 증상이 중하고딸아사망률도만습니다 그럼으로 진홍역이돌때에는 될수잇는대로 그때돌림에걸니지 올하야 고혼돌림에걸니도록하지 안으면안됩니다 홍역은전염된이후로곳증상이낫하나지안코열흘이나십일후에야 나타납니다 이긔한을의학상잠복긔라고합니다 이잠복기에는 별로히 눈에뜨일만한 증상이업습니다 그럼으로 홍역에걸린것을 도뎌히 인력으로 알아볼수업습니다 이긔한이 지나가면 차차 증상이 낫하나기시작합니다 그러나 삼사일동안는 목감기갓하야 여간주의치안으면 홍역인줄을몰읍니다 감기와다른점은 신렬, 코ㅣ스물, 기침 ... 입니다

겨울의복보존법 (二)

모직모사편물모피류등은 엇더케간수하여야되는가

... 량(全量)의삼분지일의비례로알콜을 석거서 그물을옷솔에찍어 문질르면 아조정하게 빠질것이올시다 그리하야 해에말려가지고 솔질을다시할것입니다 최후로 『아이론』으로 다려서 하로쯤 집안에 걸어두어 습긔를업시한후에 장속에나 상자에너허두어야합니다 휘발유나 암모니아수(水)로 의복의 일부분만빼를빼이게되는경우에는 그 약품을만히무처가지고 문질르면 돌이어오뎜(汚點)이내부에깁히숨여드더갈데려가 잇는고로 휘발유나 암모니아수등약품을무친솜이나 해면(海綿)을 한번 꼭짜가지고 보득보득한채로 싹싹 문질러야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몹시더러운것은 휘발유를 그릇에딸어가지고 지리삼어 빨어야할것이니 이것은 전문가에게 부탁하는것이 집에서하는것보다 돌이어 득책일가합니다 쏴겟듯, 쉬옐스에ㅣ타, 아희들의 양복가튼것은 대개휘발유만으로는 완전히 깨끗하게되기 어려운것이만흐고 ... 로 먼저회발유로빨어서 유지분(油脂分)을 제거한다음에 암모니아수나 붕사(硼砂)를 비누와석거 풀어가지고 거긔새탁할필요가잇습니다 특별히 흰감은 회발유만으로는 깨끗하게빨기가어려운고로 럭스가튼것을 사용하야 물에빠는편이 훨신나올것이올시다 담뇨가튼것은 볕잘나는날 큰쇠술로 매고 털어말린후에 며ㅅ가지가튼것으로 충분히 몬지를떨어가지고 미지근한물에 붕사를타서 거긔한참 담거두어 때를불녀가지고 좀이나누할지가튼데 빨버서 헹굴것입니다 때가다빠지거든 미지근한물에 여러번헹궈가지고 마즈막으로 찬물에헹궈서 솔에반듯하게 널어말릴것이올시다 볏살말릴긔권에 며ㅅ가지로한번더털어서솔질을하여 담뇨에 덮씨니르러가지고 다시 볏살에말릴것입니다

砲煙彈雨中에 結婚의行進曲

朝鮮飛行士와中國女子結婚

혁명의전운이 아즉도 사라지지아니한중국남경국민정부항공사령부대례당(中國南京國民政府航空司令部大禮堂)에는 두괴들교차하고 항공사령관, 航空司令官)의주례와 국민정부주요간부가참석하야 군악대의류량한 주악리에 근래에보지못하든 성대한결혼식이 거행되엇는데 신랑은국민정부 항공처 데일대부대장(國民政府航空處第一隊副隊長)이며또난수상비긔대장(水上飛機隊長)이되어 국민군을위하야 노력을앗기지아니하는 조선청년최용덕(崔用德)씨이며 신부는 중국직예성 보뎡사람호요동(中國直隷省保定人胡耀東)양이라는바 두나라사람의 이와가튼 성대한결혼식은 금번이처음이라한다 조선사람인 최용덕씨로하야끔 중국의국민정부를 위하야 생명을앗기지 아니하게한씨의과거는 과연엇더하얏는가, 씨는구한국이등군의최익환(崔益煥)씨의데삼자로일즉이봉명중학(鳳鳴中學)을졸업하얏는데 그때에는조선의사정이상무뎍긔풍이가득찻슬때이엇다 장시를품은최군은사방이넘치는부모가잇는고국을등지지아니할수업섯다 그리하야 그는십구세되든해 그의그립자가중국에나타낫스니 중국에간그는 북경숭실중학(北京崇實中學)과군관학교(軍官學校)를졸업하고 산동데이사군관(山東第二師軍官)의직에 취임하얏스나 때마츰조선에××운동이 폭발되자 그는곳군누를 사직하고 맹렬한활동을하다가 봉텬감옥에서 신음한적도잇섯스나 류창한중국말로 인하야 종시중국인 행세를하고 싸저나와 그는무엇보다도 항공(航空)의 필요를늣기어 중국항공학교에서 업을닥근후 중국항공계에 명성이놉하집을딸아 주요한군무에 종사하야오든중 때마츰남방에 혁명의 봉화가닐자 그는북방군벌의 텰남을버서나 혁명군을위하야 싸우게된것이다 우연한긔회로 녀자사범학교를졸업한 호요동양과 알게되어 뜻이갓고 취미가가튼 그들은국경을초월한 련애의승리자가 된것이라한다

코코아茶 만드는법

◇상의 (人事, 衛生, 育兒, 料理, 家庭, 問題相談)

【問】 집에서코코아차를만들면 가로가 떠오르고 또는분량을 잘맛치지못하야 씁쓸한때도 잇고 넘우달큼한 때도잇습니다 어떠케하면알맛치할수가잇슬가요(八判洞 鄭玉男)

【答】 차술살로코코아두수갈만차그릇에넛코거긔크림이나콘덴스밀크돌과히물지안케코코아가돌개월반치 따더서 차수갈로잘개인후에뜨거운물을붓고 각사탕(角砂糖)세개만너흐면 알맛한코코아차한그릇이될것입니다(婦人記者)

어린이조선

부즈런하고 깨끗하라

세계에서 데일구차하기도하지만 데일게으르고 데일깨끗지못한사람인 우리조선사람이올시다 물론사람이란들중에도 우리어린이가난하여지면 하는수업시 그러케되는것이지만 나는조흔옷을입는다든가 얼골을 여러가지 화장품(化粧品)으로 매만진다든가 조흔음식을 먹으라는말이아니라 가난할사록 몸을정히씻고 해여진옷이라도 자조쌀어입고 나분음식이라도 정하게 맨드러먹어야 병도생기지안코 또한오래살게됩니다 그리고 다른사람에게 깨끗한사람으로보힐것이니 이것은무엇보다도 부즈런하지 안으면안될것입니다 그리하야 어느어린이든지 그어린이의 얼굴을보고 그의부모가게으른사람이고 부즈런한사람임을 알수잇스니 여러분어린이들이 부즈런하고 깨끗한사람이 되면 어버이도딸아서 그러케되실것입니다 그러면여러분은깨끗한사람이 되기위하야 이먼저부즈런하십시요

어린동생

校洞公普二年 曺季熙

내동생은 금년에다섯살 되엇습니다 나와나의큰동생이 學校에 갓다오면 어린동생은 내책보도 풀어서보고 큰동생가방도 풀너서그속에잇는 책을쓰내여 늑엇이라고 직거립니다 그리고 누리들보면 언이언이하며 깃버하면서또차와서 안깁니다 무엇이든지홍내를냅니다 요전에우리가 배운창가를 하나가르켜 주엇더니 요사이는그창가를 잘합니다 아버지께서나 어머니께서 창가를하라고하시면 소리를질너하야 사람들이웃습니다 커는케능생이귀여웁니다 커동생은 커를 매우딸읍니다

미국뉴ㅣ욕에는 이런집이보통입니다 데일놉흔집이六十층

이것은아메리카뉴ㅣ욕이란 세계에서케일큰 도회(都會)에세운집입니다 이런집이 몇백인지몰릅니다 그래서뉴ㅣ욕에는二十층 三十층 집이보통이라하니 초가집에서 사는 우리들로서는 ...

봄은왓건만

宋紅國

病으로呻吟한지 찬一年 그리고석달 간얼프게 파리한몸 病席에누은채로 어느듯두해봄을마저섯세라 짓흔봄빗窓밧게흘으며 어린동무들의피리소리 지는해빗에빗겨울릴때 철들나뒤노든지나간한때가 記憶에새로워눈물에젓노라

暮春挿話 (一)

洪曉民

雜談의一

『꼿이피엇다 마음이 질겁다 꼿이떨어진다 눈물입매커진다』 하든 애틋한 녯날의靑春노래를 다시흡는 이케는 그가티 질겁고 다시듣는 抒情의靑春은 한번 다시오지를안흘것이다

眞所謂『雲淡風景近午天 訪花隨柳過前川 時人不識余心樂 將謂偸閑學少年』이라하든 程明道의生涯가 무럽지안흔배는아니다 그러나 나는 알들하게도 機械文明의×××××다는 채죽(鞭)에감겨서 하두일을걱정하지안흘수업다 ××× ××××××× 그대로 밥

雜談의二

가 나의『銀星』이라는일홈에對하야 諸兄들의言說이不二한모양이다 그러나 나의일홈은나의조화하는바이다 雅號야신등이든검둥이든 굴만잘쓰면조켓다 思想만全一햇스면조켓다 諸兄들의말도一理는잇다고생각한다 그러나 나로서는나의조화하는바를 아니직힐수업다 雅號가어리다고글꼿을쏘닭이야 업지안흘가 나는돌이켜생각컨대『銀星』이라는일홈이 일수업는愛着에잡히여 바릴수가업다 그일홈이 글는조는 數三年이라는歲月을 쫘하고보매 바릴수는업다 諸兄은 넘우나들通迫지말라 그것도 나의넷靑春의한쇠뎡이라오

淸算히 몃가지의一

지금의朝鮮文藝理論은相當히 展開되엿다 말하자면 너도나도雨後竹筍가티 머리를내밀엇다 朴英熙兄의文藝理論이라든지 金基鎭兄의文藝理論이라든지 또는尹基鼎 林和 李北滿 韓雪野 張準錫 趙重滾諸君의文藝理論이 대강이만 죽내밀엇다 權九玄 金華山 李鄕等의『아나系』도排擊될『로排擊된모양이다 그러나 나의한가지提出하는問題는 달은것이아니다 『辱淸算』부터 하자는것이다 理論과辱을混同하고보니 理論이 三分 辱이六七分이나된다 지난번張準錫兄의梁柱東에게對한駁文은『辱이다!』하는것이 우리는理論으로써 늣지질만하게되는 하자는것이안인가 辱이란다만 感情의挑發이나식엿지 무슨所用이냐 우리는同志間에게서도『誠意!』를보여야하겟고 非同志도『誠意!』를가지고 그들을克服하기를힘써야겟다 決코『픗내나는理論』을 가지고辱八分을석거서 번번하게論文이라고내어놋는것을볼때그의人格을窺視하게된다 먼저辱淸算을나는提議하야마지안는다

新刊紹介

◇法律戰線(四月號)『投票買收問題에對하야』『法戰講座帝國憲法批判』『朝鮮警察의橫暴』等 定價十錢發行所東京府富田雜司ヶ谷八一五生活運動社 京城樂園洞七五朝鮮支社

새세상사람들

柳葉作 李用雨畵

十九의十二 (一七七)

... 태호는 윤직이와가티 아침밥을 얻내엇다 태호왓나 는말을듯고 윤직의안해정애도나왓나 섯이서 안젓슬때에 또다시 경수의 이야기가시작되엇다 알고십허하는 정애가몬저 물엇다

『어드러케 된분이야요』

태호에게 정애는 다정스럽게 물엇다

『무어 여러말할것도업고 피도스러운일이니까 말ㄴ하고 십지안습니다 간단히말하자면 경수가 나에게대한 마음이변하엿다고 할수밧게업고 괴왕그리된이상나는 경수와서로갈리는수밧게업지오 그러타고서로 서로 억케하여산다한들피차에 괴롭만 더힐따름일뿐아니라 불ㅎ이지요 나는그커안뵈이는곳으로 업서커버리렵니다』

지는듯이 괴로워하엿다

『내가능히 경수를 떠나서살수가 잇슬가?』

태호는 경수와가티 잇슬때에는 그리둘새이의 애정이어느정도에까지 깁헛는지를 알지못하엿다 그러나 정작떠나려고생각해보니 태호도서는참아경수와 떠러질수가 업섯다 경수가 작고자긔를 배척하는듯 눈치가뵈일사록 더욱외로운생각만나고 떠러지기는실혓다

『용서하지…… 웨그리하면경수는나에게 자긔의모든 행동을 고백하지 안으려하고 돌이어나를 맹대하니 그러한 번번스러운일이 또어대잇슬가?……올타 내가경수의말할긔회를 주지못하엿기 때문이로구나……』

태호는 사랑방에서나와 안으로 들어갓다 경수도그 태호도그 잠이들지안어 번념히 태호의 들어오는것을 아는 모양인데 니러나서 마즈려고 아니하엿다 태호는 이것을보자 다시 끌이낫다 앗다모든 분로를 다다다안치고 온갓호조흠을 쏘다가지고 안의방으로 들어온것이 틀린다 조흠을참다가 비로소 입을열엇다 ... 『여보좀 니러나오』 경수는 못드른체하엿다 태호는다시 소리를질넛다 『니러나오 니러나요』 경수는 별일이러나며 ...

얼마후에 윤직의내외와 태호는 서로안저서 이야기도하면서놀엇다 태호의집으로왓다 ... 그러나 경수는 매우불반 ... 게 대하엿다 내외에게는다정스럽게 하엿다 그러나거긔에서엇더케 할수도업섯는고로 그대로손님들이 다돌아가도록은 갓갓스로마음을눅혀 노라고 매우노력하엿다

저녁때에 윤직의내외는 돌아갓다 태호는 경수와 떠날생각이 또나시소사낫다 그러자 경수 들바라보매 다시한번 경수를마조보고 마음서번안스고 원정을실컨한후에 박정한소리를 한번하고 십흔마음이 작고소사올나왓다

이날밤에도 태호는 사랑으로나와 경수와는 아즉도 사화하지를 못하엿다 태호가 자리우에누어서 이생각저생각 하여보는때에는 실로가삼이 떡어 ...

『이웬일이시오 아츰커녁으로 사람을 잡노못자게 깨우니 경일세』 ... 『무어요?』 『무엇이 무어애요』 『그래서가당신을 깨울사람이 못되단말이오? 당신을깨울 사람은 따로잇소?』 『무엇이 엇재요?』 『아니 깨운것이 잘못이란말이오?』 『누가깨우신것을 잘못이랍니까 조혼날도는大깨우사요……』 『당신은 웨조혼말로대답을못하시요?』 『……』 경수는아모말이업다 태호는 성난범처럼 숨을식식 어리면서잇다

天氣豫報 溫度 十六日正午六九、三 比較 十五日最高七五、七 晴後曇

無産兒童들이 自手로 校舍建築

◇유지들은그조장책강구 忠州氷峴兒童들의壯擧

충북충주군 충주면룡산리 룡산교(忠北忠州郡忠州面 龍山里龍山橋)부근에는 무산아동이모히어 학교를짓고잇다는 소문이충주시내에 뎐파되어 일반인사들에게 만흔충동을주엇다는데 이제동긔와 목뎍을들어보면 충주빙현(忠州氷峴)이란 동리에는 충주에잇서서빈민굴이라할만콤 오십여호나되는 호구가모다 적빈하고 날아서그동리 어린이들은 날다른환경속에서 낫으로로동에종사하야 그날그날의 생계를세워 나오든터에 우리는배워야하겟다는 마음으로 멧멧의발긔에의하야 낫으로일을하고 여가잇는대로 돌과나무 가튼것을주서모아 집을지어오는 겨울에는 야학교라도세워서 공부를할작뎡이라는데이에공명한동리어린동무들은 매일저녁에이면 권리룡산교근처에 모히어 소리를마추어교사건축에노력한다는데 이를목도한 충주의 일반인사는극히감동되어 찬탄함을 마지안는가온데 충주에명망잇는 청년류승태(劉昇泰)(二五)씨와 충주신간회(忠州新幹會)간사케씨가 책임을지고 그조장방책을 강구중이라더라(충주)

惠澤님지못하는 在校生은極不平

여러번교장에게교섭 ◇…平壤農校昇格問題

평양농업학교가 오월일일부터승격된다함은 긔위보도한바어니와 그승격의은택은 금월이십삼일에 새로히시험을치르고 입학하는신입생에게만잇고수백명재학생에게는 아모상관도 업게되엇슴으로 지금까지 동교동창회와련락하야 다수한 긔부금을모집하며 승격운동에 맹렬한활동을하든 동교재학생들은 크게락심되어 동교교장에게여러번 말을하얏는데 동교이학년생도중 다섯명에게대하야만새로히승격되는 입학면에 편입하도록하얏다하야 동교이학년생 약오십명은 지난십사일 교장에게다시진정서를데출하고하회를기다리는중이라더라(평양)

龍岫山火災

지난십오일오후한시반경 개성룡수산(龍岫山)에서불이닐어나 산뎡(山頂)까지부터올라감으로 일시는대소동을닐으키엇다가 동두시반경에야진화하얏는데발화원인은룡수산하룡(下龍)도덕뎡(道德亭) 근처에서아이들이잔듸불을놋코 놀다가 그와가티된것이라더라(개성)

靈光水組幹部等 突然辭表提出

리면으로갈등이계속한석데 一般은其將來를最注目

전남령광읍내(全南靈光邑內)에잇는령광수리조합(靈光水利組合)에서는조합장송원동중요간부가돌연히사직서를데출하얏다는데이제그내용을탐문한바에의하면동조합경비문데등중심으로간부간에 재미롭지 못한행동이잇서그를동긔로드되어간부간에충돌이생기어마츰내사표까지데출하게된것이라는데문데는장차회머될모양입으로일반은크게주목중이라더라(령광)

芙蓉舘事件 十三日에言渡

벌금또무죄

경북례천부용관사건(慶北醴泉芙蓉舘事件)으로지난음정초에 례천 청년십여명이 당디경찰서에 검거되어이개월전에여섯명이안동검사국(安東檢事局)으로압송되엇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와갓거니와 지난 이십일대구디방법원안동지텽(大邱地方法院安東支廳)에서청수(淸水)검사립회와뎡판사(鄭判事)담임으로개뎡되엇는데 검사로부터 배형복(裵炯福)은징역팔개월구자익(具滋益)백경두(白慶斗)외두사람는 징역륙개월김상긔(金相起)는벌금오십원으로 구형하얏든바 십삼일에 언도가잇섯는데 배형복은 벌금팔십원 구자익 백경두외 두사람은 벌금오십원 김상긔는 무죄로판결되어 즉시 출감하야 례천으로 돌아왓다더라(안동)

洪原邑에猛火

상뎜기타민가다수소실 損害二萬、原因調査中

지난십사일오후열두시경함남홍원읍남동리(咸南洪原南洞里)홍사효(洪思孝)의집에서불이닐어나이웃집 덕흥상뎜창고(德興商店倉庫)와류봉필(劉鳳弼)상뎜을중심으로부근은모다소실되엇다는데 이번화재는 홍원에서처음보는큰화재인동시에손해도이만여원에 달한다는바 덕흥상뎜창고만은 태평양화재보험(太平洋火災保險)에만원보험을들엇기때문에 큰손해는 업스나부근집들은 만흔 손해를당하얏더라(홍원)

黑友講演禁止

평양시외 긔림리(箕林里)에사무소를둔 관서흑우회(關西黑友會)에서는 지난십사일평양텬도교당에서 문예사상 대강연회를개최코저하얏든바경찰의금지로부득이중지되엇다더라(평양)

統營事件判決은 來廿一日

변호사의출뎡지연으로

긔보=경남통영(統營)에서생긴김긔정사건희생자(金淇正事件犧牲者)김원석(金元錫)외 열한명에대한출판법위반명예훼손상해협박훼긔죄(出版法違反名譽毁損傷害脅迫毁棄罪)의 공소속행공판은 예뎡과가티 십사일어전남한시사십분에대구복심법원에서장곡부(長谷部)재판장의심리와 옥명(玉名)검사의 립회로 …

鎭川紳士十二名을檢擧

수천원의거액을걸고 겨울부터하여오다가

진천(鎭川)에는작년더소위신사들이수천원을가지고 도박하야 … 십이명이 검거되어 … 취됴를밧고잇는중 …

安新盟休生 一部는登校

황해도 안악읍내 안신보통학교(安岳邑內安新普通 …) … 맹휴하야 … 리사회는 …

異域琿春에서 懲役十二年

예순네살먹은조선로인이 살인하얏다는혐의를바더

요사이 중국 훈춘디방심판(中國琿春地方審判) … 중국인살인사건(中國人殺人事件) … 혐의로인하야 … 관결언도를바든 …

돌팔이醫員이 사람을죽여

송용을해납으로알고먹여 마츰내삼명케하야

청주군 오창면 창리(倉面倉里)에사는 … 로일상신음중 … 의면허장도업는 … 그곳친다고 … 納)으로알고 먹이어 … 게한것이라는데 … 사가의사를대동하고 … 시후해부까지하얏 …

權利移動拒絶

쌍은팔고 함부로란하다가

경북봉화군내성면 …

虛僞證明한面長 詐欺、瀆職으로告訴

이미관청에서 …

전남보성군 벌교면(筏橋面)면상홍인표(洪仁杓) 서긔김홍(金弘…) … 순천군본정(順天郡本町) … 난이월이십칠일에 … 하야준것이 발각되어 리해관계자인 벌교리박사윤(朴士胤)은즉시 군수에게 질문한결과동군수는 김명석의 소유가아니라는 증명서를 하야주는한편즉시군속김긔봉(金基鳳)을출장식히어 문서를됴사한후 면장홍인표를차 군으로 불러갓다는데이제그사실을 탐문한바에 의하면권긔박사윤과 김명석 두사람은거금오년전축 대정십삼년도 부터수만원의 채금소송이 잇서서두사람은 각가소송비용도만여원식이나되는 적지안흔 돈을썻슬뿐아니라 두사람의 살림은금번소송성패에잇는한편권긔말이그승부에중대한관계가잇서서권긔가 현장에까시 출장됴사한결과 김명석의 소유가아닌것이판명되어 순텬지텽에서 그와가는관결을 바덧슴에도 불구하고권긔김씨는 다시대구 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 공소까지 하자 권긔말을 또됴사하게된결과지난이월이십륙일에김명석은자긔친족 김홍수(金洪洙)의명의로 말의소유자 증명원을데출하얏든바 면장홍인표는 대정십일년십월 삼십일일축산조합(畜産組合)됴사에의한축 김명석의소유가 확실하다는 증명을하야주엇는바 실상은 김명석의소유라고 됴사하야노흔 증거가조금도업슴에도 불구하고 그와가는허위와 증명을 하야준것이며또한면장은 이십륙일부터 이십구일까지 서긔는 이십칠일에출장한 문부가소연압으로 일반의의심이 적지안타하며 관계자박사윤은 면장과 서긔를걸어사긔공모(詐欺共謀)급독직죄 (瀆職罪)로 고소를데긔할작뎡이라더라(벌교)

儒林事件被告 십사일대구로

전남라주군남평(全南羅州郡南平) … 각(鄭林閣)사건의피고 … (金昌容)외세사람이일심 판결에 복하고대구복심법원에 공소하얏다함은임의보도 되엇거니와지난십사일에 … (광주)

稧金消費한 面長告訴

고소당한뎡모 방금엄중취됴

부천(富川)군서곳면(西串面)백석리(白石里)일백이십일번디홍재규(洪在奎)와동불백사십오번디심협재(沈協在)는그곳면장뎡모(鄭某)를횡령소비한사실로경성디방법원 인천지텽 검사국에고소를데긔하얏는바 검사국에서는 그사건의취됴를 인천경찰서에의뢰하야방금리(李)사법주임의손에 취됴를밧고잇는 중이라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들건대 지금으로부터 칠년전인축대정십일년사월경에 권긔면장 기타수명의발긔로 소위 근검저축(勤儉貯蓄)이니식산흥업(殖産興業)이니하는등 의미알에서식산계(殖産稧)를창립하야존립(存立)긔간을만오개년으로하고고금(股金)은매고이원식으로 작뎡하야고주(股主)를모집한바면민들은 면장이발긔한 일임으로누구누구할것업시신임하야참가한계원이이십칠명에달하고고본금이 칠백여원에달하야 그계의일테사무와 금전출납은 면장이전책임을가지고 업무를 집행하여오든바 그청격이 자못랑호하야 존립긔간이 만료된 소화이년륙월사일 현재로 고주매명에게 배당될금액이 일백오십원가량이엇스나 긔간이 만료되엇스되 총회를소집하지안코 배당도 하지아니함으로 준준무식한계원들은 면장의태도만 보고약일년동안을 지나오다가 작년음십이월경에 계원수명이 그리유를 질문하는일방으로 문부와금권출납을 됴사한즉 원리병하야 총액이삼천오백륙십 여원이오 더부한증서가 팔십구매인테그중에대부하고도 증서를작성치 아니한것도잇스며 그외에허위의 증서를작청한것도 잇슬뿐아니라부평(富平)우편소와주안(朱安)금융조합의예금중으로현금이백삼십원과 그동리 송영진(宋永鎭)의대부금중으로이십일원이십전을 령수하고 오륙개월이되도록 장부에 긔입치안코그돈을 소비한일이잇스며 소위배당이라는것은 미수된 증서를 가지고 계비들보바다 쳐각기그해면금액과 리자돌바다 쓰도록하되 그것도를공평하야 겨우이십칠원멋개 찻지못한 계원이십여명에달하얏슴으로 마츰내 그와가티고소를데긔한것이라더라(인천)

江東大山火 太半燒失

강주인의집재지

지난십사일 오후세시경 평남강동군강동면 송학리(平南江東郡江東面松鶴里)향교소유림(鄕校所有林)에서불이닐어나 맹렬히타기시작하는것을 즉시동군읍내소방수와 청년단의 출동으로다섯시반에야 겨우진화하얏다는데 손해는 동산판(山坂)의반수를소실하고 삼림간호인(森林看護人)의주택까지 전소되엇는데 원인은간호인의집에서 실화된것이라더라(강동)

世上悲觀코 投身自殺

삼십세청년이

지난십일 오후세시경의주군광성면마뎐동(義州郡光城面麻田洞)에서신의주부약죽뎡 (新義州府若竹町)이번디에사는박긔진(朴基珍)이라는삼십세청년이 자살하얏다는데이제그원인을들으면그는권긔주소에서그의안해장씨(張氏)(三六)와 함께금년에 날곱살 먹은어린아들을다리고양산과고무신을갓쳐서근근히세사람의목숨을붓허오든중 그나마 오래계속할수가업서 지금으로 부터멧달전에 아들는 자긔고모의집으로보내고내외가서로괴로운살림사리를하야오든중그의안해까지불치의폐병(肺病)으로이세상을떠나게됨애 박긔진은 마츰내세상을비관하고안해를장사하고돌아오다가그가티자살한것이라더라(신의주)

毆打當한少年告訴

긔보=충북충주금뎡사는도변효삼랑(渡邊孝三郞)이라는일본인에게구타를당한소년황관복(黃觀福)은충주부여병원장김뎡우(金鼎禹)씨로부터치료일주일의진단서를바더충주경찰서에고소를데긔하얏다더라(충주)

新興하는 雄基市街

신축가옥이 매월백여호

방금건설(建設)의 도중에잇는 웅긔(雄基)는 작금량년에 축항공사(築港工事)와 텰도공사(鐵道工事)들이시작되어 날로시가번창하야가는바 최근웅긔경찰서에는 가옥건축허가원(家屋建築許可願)이매일십건내지 이십건에달한다는데 지난삼월중순으로부터 금사월십일까지 한달도못되는 그사이에 신축(新築)된가옥이 일백구호에달하고증축(增築)된것이 십칠호로 합계일백이십륙호의 신증축이 잇섯다는바 지금도계속하야 매일십여호식 신축되야가는 비상한긔세를 보인다는데 이것만으로도신흥하는 웅긔 발뎐의한끗을엿볼수 잇나더라(웅긔)

溫陽貯水池에 또靑年溺死

지난십삼일 온양수리조합 저수지(溫陽水利組合貯水池)에서칠십여세의 로인이자살하얏다 함은긔보한바와갓거니와그시톄도아즉 발견 하지못한 지난 십사일오후 두시경에 또아산군신창면신달리(牙山郡新昌面新達里)오대영(吳大泳)(二八)과 례산군대흥면로동리(禮山郡大興面魯洞里)박후양(朴厚陽)(二三)두사람이『쏘-트』를 타다가 잘못하야오대영이 싸저죽엇다는데 그시테역시아즉까지발견치못하얏다하며 원인은 술에취한까닭이라더라(산아)

戰爭과戀愛 〔36〕

金東煥 作 安碩柱 畫

파출소로

『얘야탄실아 어서밥을먹어라 그러케곤하니 이제는 서울을 다왓다우』

탄실아 어서이러나 밥먹고마저 가지안켓니 길이작고 어두어진다』

마치 자든아이를 깨우는드시 로파는 또한번흔든다 그러나이번에도 아모대답이라고업다

『얘가웨이러니 밤낫서울서울하다가정작서울을다 오니죽어잡바지느냐 탄실아탄실아 너는아버지를 아니맛나겟니?』

벌서거퇴해가 서울의무학재고개를 누엇누엇 넘기시작하야 대디에는어둠의날개가만몰을싸돌기시작한다 병영의 긴담밋풀밧헤도 귀뚜람이소리가 소란히나며 수채구멍으로는 물이졸졸흘너내리는소리 가련디의적막을깨트려놋는다로파는이러케무인디경에서벌네소리와물소리를드른매적막이뼈속에숨여두는듯할뿐더러무섭기도하여얼는아해를제가슴에 꺼어안는다 기집애는벌서 칠날세는되어보이나" 인생의 최하층에서자라난 모양으로영양부족때문에 사지가 병신가티 말라누럿다

『탄실아탄실아 정신을채려라 얘가웨이럴가 금방것든아해가 웨죽어잡바지니 애글세탄실아』

로파는 황망히가슴에손을 너허 심장을만저본다 여전히똑똑똑똑하고 피는뛰며 입김에서도 호흡이 계속하여난다 그러나사지는 돌가티점점구더지고 다식어간다 로파는집이 덜컥나는도양으로 계집아해를 다시앗가자리에 내려노코 얼는수채구멍잇는데로 달려가서 두손바닥에물한옴큼을 바더다가 그입에대인다를만은목구멍을너머가는모양으로배런버리지안는것을보고또다시달려가물을떠다가먹이엇다 아마겁흐사오차나하엿슬때에죽은듯하든그아히는숨비스듬이뜬다

『오, 탄실이냐탄실이냐엄마속을태우지말고 어서정신을 차려라여기엄마잇다 내가보이지안니?』

『……』

『어서 정신을차려라』 켜는서울을다왓다 저것봐라 불이번쩍번쩍보이지안니 저곳이 서울이란다 이제는다왓다』

탄실이라하는 그아해는 꿈속에서깨어난드시 고개를들려 찬란한룡산시가의 던긔불을 한참바라보다가 로파의가슴에 착달려안기며

『나는실혀엄마나는무서워』

하고정말호랑이나본드시목을억개속에옷속 쑤으려드리며두 큰짓는다

『쉬어 웨이런소리를치니어베 가온다어베가온다쉬이』

『어머니정말나는무서워』

『괜찬타 괜찬어엄마가 네겨테 잇지안느냐 어서이러나밥이나 먹어라 배가곱하서그러케서무러쳣든것이구나 오죽 배가곱핫겟뉘 나는죽은줄만 알엇다』

『아버지두 아니보구난죽기실혀 어머니그러치』

『그러기에 될말이냐』

『멈마 정말아버지잇수거짓말이아니우』

『거짓말을웨하겟니잇지안코』

『서울에? 정말서울만가면맛나지웅 나는아버지를꼭붓잡고 아니노흘테야』

로파는 어두운속에서도 몸서리를한번치더니

『맛나고말고 너를엇더케기대리고잇는지 몰은단다 어서밥을 먹고마저 가자 서울이눈압헤보히지안뉘 탄실아어서 밥을먹어라』

『어머니도 먹우』

『오냐 어서먹어라오늘저녁은 이밥이다 보리쌀이 조금식석겻지만 그게도리혀먹기조탄다』

로파는 앗가 수채구멍에서걸러온밥보를 내어노으며 뒤을먹인다뒤은몸시배가곱헛든모양으로두손으로마구웅키어먹는다 병뎡들이먹다가내어버린찌게기밥은 그네에게 친수선찬이엇다한참욱이어너타가 어머니가 아니 먹는것을보고뒤은

『엄마 웨안먹우안먹으면나두안먹을레야』

『오냐 웨안먹겟니이러케먹는다 어서 너도배불리먹어라』

『그래두 오늘저녁밥에는돌이만우』

『돌은 배러버리고밥알만먹어라 이들상할라』

『이게 이밥이지? 맛이나우그려』

『한참만어, 돌은밥을 다먹고 치웅어머니』

손을 죽죽털며 이러선다 별서 볼시어두어저서 서로얼굴조차보이지안을지경이다

어듸서와서어듸로가는가련한손님들이지어두운밤중에압뒤에서서 두모녀은 또거름을것기시작한다 한참가다가 계집아이가 돌색리에채어 너머진다 로파는 얼는이르켜서등에업고또것는다 그는세상이모도두렵고실흔모양으로 사람만맛나면 깜작깜작놀란다 돌는것다가는 쉬고쉬다가는 것고 삼판동(三坂洞)을향하야 작고올라간다 그리다가한참만에빨간등불을에칼찬순사가떡버티고서잇는것을보앗다 별서파출소압헤 이르른것이다 로파는산면을한번 돌아보더니 무엇을걸심한드시 아해를 한손에잇글고그압으로 주저주저간다 순사는아픠가튼 노파를보고 깜작 놀라두어거름물너간다